

영국의 평전출판문화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 재미 있는 책은 사람 사는 얘기를 담은 책' 이라고. 그리고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살아가며 모든 것 다 경험할 수 없을 때 남의 경험담을 들으라' 고. 그렇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감동과 재미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모든 감동과 재미를 다 만끽할 수는 없으며, 세상사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들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론 감동하여 눈물 짓고, 때론 재미있어 박장대소하며, 그리고 또한 다양한 간접 경험

을 통해 고개를 끄덕이며 많은 것을 배운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출판에서는 여러 갈래로 책의 분야를 나눈다. 여기엔 소설, 비소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 전기傳記란 분야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전기(傳記 : a biography)' 는 개인 일생의 사적事績을 적은 기록을 말하며, '평전(評傳 : a critical biography)' 은 비평을 곁들인 전기를 말한다. 그리고 '자서전(自敘傳 : an autobiography)' 은 자기의 성장과정을 회고하고 성장내력과 정신적·지적 발전을 기록한 전기를 말한다. 가장 진솔하면서도 우리에게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기는 책의 장르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야

이구용\_ 임프리마코리아 에이전시 부장

평전통해



의 책이다. 전기, 평전, 혹은 자서전 등에 개인의 일기에 못지않은 솔직함이 살아 있고, 소설에 버금가는 스타일과 감동이 배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처세서도 능가하는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노하우가 가득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쓴 책을 즐겨 읽는다. 어린이들은 위인전을 읽고, 청소년들은 위인들의 명상록이나 수상록을 읽고, 성인들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회고록은 물론 인생에서 실패하고 성공한 경험을 진솔하게 그린 평전이나 자서전을 많이 읽는다. 여기엔 동서양이 한결같고 과거와 현재가 따로 없다.

필자는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한편 친숙하면서도 한편으로 낯설기도 한 평전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우리가 아닌 영국의 평전문화에 대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바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나라의 일부 평전문화를 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

세계화시대 경쟁력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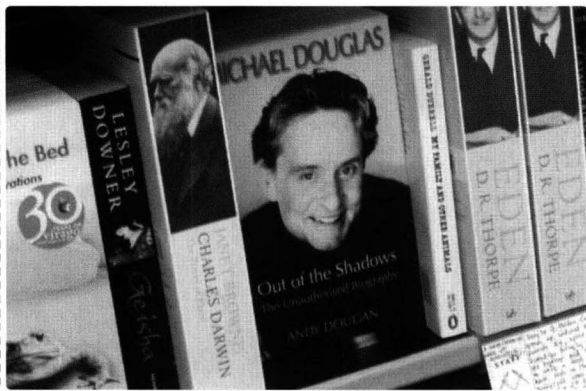
공한다면 필자로서 영광이다.

우선 영국의 인구는 현재 약 5,700만 정도에 이르며, 16세 이하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퍼센트 정도, 60세 이상의 인구는 19퍼센트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가장 활발한 독서인구는 아동도서 분야를 제외하고 전체인구의 61퍼센트인 3,477만 명 정도가 된다. 이에 필자가 영국의 출판협회(The Publishers Association)에 의뢰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작년 2003년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그 전년도인 2002년도 한 해 동안 영국에서 출판된 평전의 전체 종수는 자서전(1,375종)을 포함하여 총 3,232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평전출간 부수와 비교하였을 때 10배 이상이 높은 수치이다.

필자는 지난 3월 10일에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에 위치한 7층 규모의 서점인 워터스톤즈(Waterstone's)에 들렀다. 그리고 그 서점에 진열된 평전도서의 종수가 얼



마나 되는지를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필자의 느닷없는 질문에 잠시 당황하며 머뭇거리던 직원은 다른 직원과 말을 주고 받은 후 일러주었다. 그 서점에 들어와 있는 평전 종수는 대략 3,000종 정도가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필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은 서점의 한 쪽 면이 전부 평전도서로 진열되어 있었다. 수십 폭의 병풍처럼 보였다. 평전의 주인공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말끔히 진열하였다. 한 칸에 평균 20권 정도씩 꽂힌 6칸짜리 책꽂이가 35개였다. 사실 창고에 따로 보관되어 있는 부수를 제외하고 꽂혀 있는 부수만 대강 계산해도 4,000부는 족히 넘는다. 평전 코너의 도서는 알파벳 순의 배치 외에도 주제별로도 책꽂이 중간 중간에 진열되



영국의 평전출판문화는 우리와 분명 달랐다. 그리고 그 나라 독자들과 독자문화 또한 우리와 분명 다르다. 영국에는 특별히 전기나 평전을 위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많은 출판사들이 각기 다양한 평전이나 전기, 혹은 자서전을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들 역시 다양한 평전들을 읽고 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계 종사자, 철학자, 사상가, 문학가, 정치가,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책들을 그들은 읽고 있다. 아니, 영국 출판사들은 것처럼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위인이나 유명인 중심의 평전출판이 아닌, 그리고 어느 특정 시대의 인물들 중심이 아닌, 인류역사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물들의 평전이 출판되고 있으며, 그 평전들을 영국 독자들이 꾸준히 읽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로부터

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 평대에도 전기는 성격별로 전시, 진열되어 있었다. '회고나 추억'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평전의 매대, '상처받은 영혼'의 인물을 다룬 평전의 매대,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을 그린 평전의 독자적인 매대도 꽤나 이색적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왕실이 존재하는 입헌군주국가여서 그런지 '왕실 평전(Royal Biography)' 코너도 별도로 중앙에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 진열된 책만도 250종은 족히 된다. 영국 왕실에 대한 책이 160여 종, 그리고 프랑스나 러시아 등을 포함한 기타 나라의 왕실과 관련한 책이 90여 종 정도는 돼 보였다. 더 나아가 라틴 아메리카 인물을 다룬 매대도 따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 글을 쓴 이구용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했고 논문으로 <조셉 콘라드의 소설에 나타난 제국의 언어>와 <탈식민주의의 글쓰기 전략>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의 다섯 가지 가르침> <아빠여서 좋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 외 다수가 있다. 현재 임프리마코리아 에이전시 부장으로 일하면서 국내외 저작권 수출입을 맡고 있다.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필자가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영국 독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책들을 꾸준히 읽는다는 것과 상통하며, 다양한 삶을 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접해 그들 또한 간접적으로라도 풍성한 경험과 풍부한 사고를 지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니 그들은 치열한 세계 경쟁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춰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평전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모두 유식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양한 평전을 읽을 수 있는 터전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열악한 출판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책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문**